

청년 예술가 · 지역사회 소통 · 상생

금과 강도근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개최

‘NOW청년PROJECT III’ 8일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쉼터서 개최

오는 8일 '2023 NOW청년PROJECT III'가 사단법인더문화의 주최로 전주한옥마을 태조로쉼터에서 열린다.

2023 NOW청년PROJECT III는 다양한 장르의 청년 예술단체를 모집하여 지역의 청년 단체가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다양한 무대와 공연문화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이번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과 전주한옥마을 관광객들에게 모두 활기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지난 NOW청년PROJECT 시즌 I·II에 이어 시즌III로 다시 만나게 되어 좀 더 다양한 공연과 멋진 출연팀들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한옥 정인 콘서트 출연 및 인문밴드 레이로도 활동 중인 '이상욱 밴드'와 2021여수 낭만 버스킹 공연과 인디살롱 벚꽃 흘날리는 어느 봄날 jazz concert 등에 출연한 '오프스트릿'이 이번

2023 NOW청년PROJECT III의 무대를 장식한다. 출연팀은 전주 한옥마을 오목대 관광안내소 앞 '태조로 쉼터'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버스킹 공연을 한다. 출연팀은 지역 주민들과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들에게 잠깐의 휴식을 위한 쉼터에서 눈과 귀가 즐겁고 편안한 버스킹 공연으로 관광객들에게 관광 외에도 다채롭고 색다른 즐거움과 심신이 편안한 휴식의 공간도 제공함으로써 '불거리가 넘치는 전주 한옥마을'로 전주 한옥마을 관광사업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어 줄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청년 예술가들에게 무대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의 소통과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사단법인더문화가 기획했다.

공연은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공연문화 모더레이터를 양성하고 경

기참체와 고용불안으로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도 끼친다. 사단법인더문화는 이번 공연 'NOW청년PROJECT III'를 통해 청년예술단체들에게는 보다 많은 무대 기회 및 본인들만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 및 관광객들에게는 관광과 더불어 더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와 다채롭고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의 공연들로 오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주 한옥마을 관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사단법인더문화의 대표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다가오는 시원한 가을의 청취와 함께 즐거운 관광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청년예술단체와 지역민 및 관광객 모두가 풍성한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불거리가 넘치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서 6~7일 진행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사)강도근동편제판소리보존회 주관으로 제31회 금과 강도근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대회는 일반부, 신인부(단체 및 개인),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부문의 판소리와,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부문의 고법 경연으로 펼쳐진 이번 경연대회는 6일에는 예선, 7일은 본선이 치러지며 고법 부문은 올해 새로이 추가됐으며, 또한 10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지리산 소극장에서는 김해정 국악인의 흥보가 완창 발표회가 열린다.

금과 강도근 명창은 1918년 남원에서 태어나 16세 되던 해에 김정문 문하에 들어가 1년을 사사하고 20대에 조선성악연구회에서 당대 최고의 명창 중 한 사람인 송만갑 선생에 판소리 다섯 마당을 두루 배웠다고 한다. 이후 지리산 쌍계사 일대에서 7년여 동안 독공했고 1968년 전국국악경연대회 세종상, 1986년 KBS국악대상 등을 수상했다.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예능보유자였던 강도근 명창은 1973년에 남원 국악원 판소리 선생으로 부임해 남원의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았으며, 안숙선, 오갑순, 강정숙, 이난초, 전인삼 명창 등의 많은 제자를 육성했다. 한편 보존회 이난초 회장은 "그동안 뛰어난 기



제31회 금과 강도근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포스터

량을 마음껏 뽐내는 아름다운 경연의 장"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통문화와 민족예술인 국악의 위상을 한껏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즈베키스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김제 온다

21일 열린 클래식 음악회 김제문화예술회관서 개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우즈베키스탄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직속 오케스트라 '우즈베키스탄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열린 클래식 음악회'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우즈베키스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우즈베크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제 콩쿨에 입상한 최고의 젊은 영재들을 뽑아서 설립된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이다.

지휘는 Romania 보르사니 필하모니 상임지휘를 역임하고 현재는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는 강민석 교수와 파라과이 국립교향악단의 후안 카를로스 산토스 지휘자가 맡는다.

불쇼이 국립극장 전속 가수 H.Sabina 등이 출연해 오케스트라와 하모니를 이룰 곡들로 듀엣-Luis Miguel의 Manana de Carnaval, 샤를 드 베리오의 '발레의 정인'(Charles-Auguste de Bériot, Scene de Ballet, op.100) 요한스브라우의 박쥐 서곡(J.Strauss Fledermaus Overture) '베사메무초', '당신이 나를 사랑할 때' 등이며 광주시립합창단 단원인 소프라노 김은혜, 테너 김호섭, 바이올린 K. 디프론 등도 함께 깊어가는 가을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관람권 예매는 10월 10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구매가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 가을축제로 상설공연 즐겨요”

전북문화관광재단, 도민 문화예술 향유 · 지역관광활성화 도모 위해 지원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7~28일까지 전북 대표 상설공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와 지역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연예술과 함께하는 전북관광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먼저 7일 오후 6시 임실N치즈축제에서 임실 필봉농악보존회의 K-판뮤지컬 '동행'을 선보인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로 지정된 필봉농악을 바탕으로 한 내용으로 한옥자원활용야간상설공연 선정작이다.

이어 8일 오후 2시15분 완주와일드&로컬푸드 축제에서는 합곡마을 문화생산자협동조합의 '전통연희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내용은 전북 무형문화재(전주거절놀이)와 국악이 어우러진 퍼레이드 공연이다.

한글날인 9일 오전 11시 김제지평선축제에서는 합곡마을 문화생산자협동조합의 '전통연희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 남원 흥부제에서는 포스댄스컴퍼니의 '환상 퍼레이드'로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소재인 할미선, 도깨비 등을 현대적으로 융합한 거리 공연이 펼쳐진다.

13일 오후 4시 순창장류축제에서는 합곡마을 문화생산자협동조합의 '전통연희 퍼레이드'로 축제의 흥을 한껏 올릴 예정이다.

14일 오후 2시 고창 상하농원의 헬러원축제에서는 고창농악보존회의 '고창풍류 구경가세' 퍼레이드를 통해 농악, 판소리, 풍장패 등을 활용한 공연을 만날 수 있다.

28일 오후 7시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에서는 재단의 판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 공연을 선보인다. 내용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판소리와 무용 등이 결합된 난버널 융합공연이다.

마지막으로 28일 14시 전주 완관분화관의 한옥마을 문화시설 특화축제에서는 합곡마을 문화생산자협동조합의 '전통연희 퍼레이드'로 관광객을 만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전북을 찾은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풍성한 볼거리를 지원하고 있다"며 "가을 축제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블로그(blog.naver.com/jbc2016) 및 예술회관운영팀(063-230-7490, 749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무형유산 · 공연 결합 '국립무형유산원 나들이' 운영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14일, 21일, 27일, 28일 등 총 4일간 7회에 걸쳐 내부 관람과 공연 등을 결합한 프로그램인 '국립무형유산원 나들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매사냥꾼, 해녀, 대목장, 택견 수련자와 출연하는 사람으로 분장한 5명의 배우들이 국립무형유산원의 주요 공간을 소개하면서 무형유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연극 형태로 진행된다.

특히 1회차와 7회차에서는 각각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초

청공연인 '땀과, 시간을 만지다'와, 한국음악 그룹인 AUX가 출연하는 창작공연 '너나들이'을 관람할 수 있다. 또 2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탈춤, 줄타기, 해녀를 형상화한 입체 액자를 만들어볼 수 있다.

각 회차마다 20명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6일 오후 3시부터 11번가 티켓(<https://ticket.11st.co.kr>)에서 1인 5천 원에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전화(063-280-1434)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최초전시지일 프로젝트 조채은 개인전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오는 13일까지 전북예술회관 3층 산마루 전시실에서 조채은 작가의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가에 따르면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그린다. 공연으로 산책 나오신 할아버지, 여름을 놓치지 않아 훌쩍 집 밖을 나온 학생, 동기들과 추억을 남기기 위해 학교로 온 무리들 등 그분들에게 일상 한 조각이었지만 작가에게 특별한 순간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를 여행처럼, 계절을 충분히 느끼며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자세한 문서는 전북예술인복지센터(063-230-7430~7433)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